

5·18 국가유공자는 반쪽

보훈처, 지정만 해 놓고 관리대상에선 제외
교육·의료 등 사후관리 못받고 후유증 시달려

5·18 민주 유공자들이 국가보훈처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상이나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이면서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5·18 부상자 가운데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상당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4일 광주시와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 민주 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범위에서 제외돼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는 생활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법률은 보훈처가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지원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생활상태 등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보상의 내용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연금이나 취업·교육·의료 등 각 분야의 지원을 받더라도 유공자가 생활고를 겪게 될 경우 국가에서 이를 책임지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5·18 민주 유공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4·19 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 순직자·상이자·공로자 등과는 달리 '5·18 민주 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금을 받고 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5·18 민주 유공자는 연금 대신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으며, 국가유공자와 같은 지원 혜택이 가능하지만, 사후관리는 받을 수 없다.

5·18 관련 단체들은 보상금을 하끼 번에 받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이 어렵고, 고문이나 부상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에 따라 극심한 경제난과 후유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연식(47)씨는 "5·18 민주 유공자

그 중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심신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4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보



을씨년스러운 교정

4일 아침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교정에서 학생들이 점퍼나 두툼한 가을옷을 입은 채 등교하고 있다. 이날 광주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산하기관장 사직권고 논란

市 “사직의사 밝혀왔다”…당사자 “그런 적 없다”

내달 최소 4곳 교체 방침

광주시가 사직 권고 등을 통해 다음달 중 최소 4곳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를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로 예정된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인사 숨통을 트우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대표는 3년 임기가 보잘것없는 데다, 아직까지 광주시와 이들 기관 간 대표 교체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고 있어 사직 권고가 일방적으로 이뤄질 경우 반발도 예상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 전략산업진흥원과 과학기술교류협력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장인균 광주시 정부특보는 “공기업 등 산하기관 감독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소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중 일부에게 사직을 권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산하기관 대표는 이미 사직 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진 한 산하기관 대표는 “사직과 관련해 어떠한 통보를 받은 적도,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며 “언제든 그만둘 생각은 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할 일들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28개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실무작업을 거쳐 22개 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공기업 구조조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공무원 특혜 채용’ 이달중 일제 감사

정부는 이달 중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 여부 등 인사 전반에 대해 점검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을 중심으로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특별 채용에 대한 자료를 모두 수집했다”면서 “이달 중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팔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키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5개 광역단체에 대해 정부종합감사를 벌이고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와 근무 태만에 따른 서민의 피해가 있는지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철학으로 ‘공정 사회’를 천명하고, 친서민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강원과 전남, 울산을 상대로 감사를 마치고 현재 대전에 대한 합동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까지 광주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이번 감사에서 공무원 채용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6급 이하의 인사자들을 갖고 있어 이 부분에서 특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광주 쌀도 북한 간다 연내 6억원어치 보내기로

광주시와 민간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광주시 남북교류협의회가 올해 안에 모두 6억원

어치의 광주산(產) 쌀을 북에 보내기로 했다.

광주시는 4일 “이날 오전 남북교류협의회 총회를 열어 1차로 4억원, 2차로 2억원 어치의 쌀을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위해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차 4억원은 광주시 예산 3억원과 남북교류기금 1억원 등으로 마련해 이달 안으로 쌀을 북송하고, 2차 2억원은 범시민 성금모금으로 조성해 연내 북에 보낼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관계자는 “대북 지원 쌀은 광주산(產)으로 하기로 했다”며 “세부 지원 계획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전남쌀 190t을 포함 쌀 203t에 대해 전반 허가를 받아 일진각을 거쳐 수해 피해지역인 신의주까지 운송, 대북 쌀 지원의 물꼬를 뚫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유명한 전

www.pradohotel.co.kr

‘화’바뀐 프라도호텔 웨딩홀에서 당신의 미래를 시작하십시오!

■ 특급 프라도호텔 웨딩을 선택 하셔야 할 이유

1. 실속있는 고품격 웨딩 (일반 예식장 가격으로 모십니다.)
2. 예식 진행 비용도 모두 무료 / 식사요금만 부담
3. 하루 단 한쌍 (450명 이상 예약 시)
4.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로운 예식시간 (최소 200명 이상 예약 가능)
5. 독립적인 식사장소 제공을 통한 여유로운 피로연
6. 특급호텔 조리사가 제공하는 최상의 요리
7. 한 쌍 만의 사용 고객을 위한 혼잡하지 않는 주차장

호텔 프라도
P R A D O

예약문의 | 상담. 062-654-6600

사 | 원 | 모 | 집

프라도호텔과 함께 할 사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카 페 습	여 0명	
중 식 당	여 0명	
연 회 장	남 0명	
프런트클러	남 0명	경험자
프런트밸맨	남 0명	

■ 자격요건: 응모단정하며 성실히 일하실 분.

